

우리말 「신약전서」: 세 번역 고찰

김태룡*

1. 글의 첫머리에

우리 겨레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되기에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이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로 보면, 천주교회가 백 년이나 앞섰지만, 성경 번역의 역사로는 개신교 쪽이 도리어 백 년이나 훨씬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양쪽 '번역사'에 대해서는 따로 독자의 공부에 맡긴다.) 이 글에서는 '성경' 전체가 아니라 '신약'만을 다루기로 한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성경 번역에 임하는 정신과 방법상의 자세가 뚜렷이 달랐다. 개신교 쪽에서는 성경 본문만을 충실히 번역하는 데 힘썼는데, 천주교 쪽에서는 본문 못지 않게 교리에 따르는 해설을 붙이는 번역에 역점을 기울였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인준'이 공인역의 필수 요건인 반면, 개신교회는 각 교파가 집결한 성서공회 주관의 번역을 공인역으로 한다. 그러므로 대한성서공회는 번역의 기본을 '본문만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그 본분이라'고 거듭 천명하여 왔다.

1968년 1월 신·구교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성서를 번역하게 되었다. 이것은 20세기 후반기에 있어서 기독교인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깊은 의미를 지닌 큰 일이다.

그 뒤, 양쪽 계열의 번역이 많이 일어났고, 공동번역의 당사자인 천주교 쪽에서나 개신교 쪽에서도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이 들끓어 일어나, 천주교 쪽에서는 '200주년 성서'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개신교 쪽에서는 '표준번역이 될 만한 새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 다루어야 할 것은 「개역개정판」의 출현이다. 한국 교계에서 반세기

* 1949-1961년, 대한성서공회 출판실무 담당자,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원고 작성자.

이상 거의 대부분 신자가 애독하여 온 「개역」 성서를 그 번역 체제는 고수하고, 원전의 뜻을 어긋낸 낱말, 표현이 알맞지 못한 부분, 우리말 어법에 거스르는 것들만을 바로잡기에 손을 댄다는 취지로 이룩한 큰 작업이었으니 그 공력을 기려 마땅하다. 이 「개역개정판」은 현대의 한국 교계를 이끌고 있는 기성인 층이 고정관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력을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우물 안 개구리 생각이 존속되고 잔존하는 한, 상당한 기간 중용될 것도 뻔한 노릇이다.

필자는 우리 겨레, 우리말 성서를 읽는 교우들에게 자기가 지금껏 읽는 번역본만이 완전하고, 여타 역본을 배격하려 드는 웅졸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권하는 생각에서 이 논제를 잡았다. 성서 번역에 힘쓰신 분들의 공력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언은 언제나 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벧후 1:20-21, 「표준새번역」)
한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이다.

이 글의 표제로 잡은 세 역본 신약은 ① 천주교쪽 「천주교 200주년 신약성서」, ② 개신교쪽 「표준새번역」, ③ 「개역개정판」을 두고 한 것인데, 오늘날 퍼져 있는 우리말 신약들 가운데서 대표적이라 꼽는 것이 영똥한 편견은 아니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세 신약 번역의 특성 개관

2.1. 「200주년 신약성서」

‘공동번역’을 공인역으로 받아들인 천주교회는, 교회 창립 200주년이 되는 1984년에 대어 기념 신약을 독자적으로 번역하기로 하였다. 곧 ‘공동번역’은 전례용으로 하고, 학습용으로는 새로운 번역을 기획하고 힘을 기울인 열매가 1991년 3월 25일자 보급판 초판이다. 그 실물을 놓고 살펴보자.

200주년 역의 보급판 속표지: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인준-

2.1.1. 천주교 쪽의 최신역 신약임

현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번역이다.

2.1.2. 번역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글

(1) 머리말 인용

1974년 뜻 있는 가톨릭 성서학자들의 동참에 힘입어 ‘200주년 신약성서 번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곧 번역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에 맞추어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제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보급판을 먼저 펴내게 되었습니다. 낱권으로 발행되는 주석판이 완간되기까지는 좀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급판이라 한 것은, 거의 직역에 가까운 주석판의 역문들을 다소 운문하여 일반 신자들이 읽기 쉽게 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주해는 주석판에 수록되었으므로 여기에는 참조 구절과 간단한 각주만 곁들였습니다. (줄임) -분도 출판사-

(2) 「200주년 신약성서」의 탄생을 반기며

-한국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들은 ‘사도적 가르침을 위탁받은 이들로써’ 자기들에게 위탁된 신자들이 필요한 주해가 충분히 달려 있는 성서 번역을 통해서 교회의 자녀들이 신약성서, 그 중에서도 복음성서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교회의 자녀들이 안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성서와 친밀해지고 그 정신에 젖도록 해야 한다.” (계시현장 25항)

근래에 와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 성서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그에 대한 연구가 대단한 세력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는 지탱과 힘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마음의 양식, 영신생활의 깨끗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힘과 능력을 간직하고 있기(동 21항)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에 대한 신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연구 분위기에 걸맞은 성서 번역본 특히 지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바 ‘필요한 주해가 충분히 달려’ 우리말 성서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부끄럽기까지 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주로 몇 분의 뜻 있는 학자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큰 다행이며 한국교회 전체에 더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줄임)

(3)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활동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에서는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성서' 번역을 시작하여 1977년 2월에 첫권 「호세아·미카」가 그 작업의 선을 보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그 머리말에서 이 성서의 용도를 학문용으로 규정하였다.

(줄임) 마침내 우리 교회가 이제 정예한 지성의 신학자들을 배출하였고 이들에 의해 성서번역사업의 앞날에 보다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성서의 번역은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새로이 번역될 필요도 있으니, 세대가 거듭할수록 성서신학이 더욱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은 바로 하느님 말씀의 농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의 성서 번역 사업은 전례용을 위하여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왔다. (줄임) 신구교가 공동으로 성서를 번역하고 사용하는 일은 기독교 일치운동에 따른 아름다운 결실로서 계속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에 가톨릭 교회의 성서학자들에 의해 새로이 번역 출간되는 200주년 성경은 학문용으로서, 풍부한 각주를 곁들인 일종의 주해서이다.

(줄임) -리 진호 지음 「한국성서백년사」 I. 280쪽에서 재인용.

위의 (1)(2)(3)은 「200주년 신약성서」가 천주교 성서 번역의 기본 주안점 곧 주해 성서에 충실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해는 본문의 분량보다 훨씬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또한 「입문서」에는 성서 저자의 경력·주관·전체의 요약을 상세하게 썼다.

2.1.3. 번역 대본을 밝힘.

그리스어 성서 제 3판(1975) The Greek New Testament(Published by the United Bible Societies)을 사용하였다. 「공동번역성서」보다 더 최신의 원전을 썼다.

2.1.4. 번역자를 밝힘.

김병학 김영남 김윤주 민병섭 박상래
박영식 범선배 서인석 신교선 이영현
이흥기 임 세바스티안 장 엘마로 정양모
정태철 진 토마스

(이분들은 서강대·가톨릭대·대건신대·지도 신부가 본직인 성서학자임)

2.1.5. 우리말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우리말은 고유의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뒤섞이어 이루어진다. 그 말을 활용하는 법이 뚜렷하여, 높임·낮춤의 구별, 공손한 말·막말, 어려운 말·쉬운 말 따위 대응에 합당한 말을 가려 써야 뜻을 이루기에 다다르는 까다로움이 뒤따른다. 낱말과 구절을 잘 조정해야만 매끈한 말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부드러운 정서를 일으키는, 우리말 어법의 묘미를 잘 살려 놓았다.

2.1.6. 예수의 대화에 ‘하오체’는 정말 혁명적임.

우리말 신약이 110년을 내려오면서 어느 역본이나 한결같이 예수의 말씀은 대화 상대자에게 ‘해라체’ 말을 써 왔다. 그것을 「200주년 신약성서」에서 ‘하오체’로 정립한 것은 과단성 있는 혁명적 처사이다. (「공동번역 신약」 초판(1971)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오체’가 그 개정판(1977)에 다시 ‘해라체’로 되돌아선 일이 있지만) 예수의 인권 존중 사상보다 낫고 있어 그분을 앞서겠는가? 그러한 예수의 인격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을 낮춤말로 대했을 리가 없다. 반드시 ‘하오·하시오·보오·보시오·갑시다’ 하고 말끝을 맺으셔야 우리말다운 것이 아닌가?

신앙문화로 언어문화를 물리치려는 인위적 조작은 옳지 못하다. 언어문화에 융합되어 순리로운 어법으로 다듬어져야 원문의 뜻이 전달됨을 믿는다.

말이 살아야 현장감이 우러나고, 생동감이 솟아나 감동에 젖게 됨을 믿어, 이 번역의 우리말 처리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2.2. 「표준새번역 신약전서」

이 번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손꼽을 조건의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말, 구어체로 된 점이다.

신약 원문이 그리스말 가운데서도 가장 쉬운 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코이네, 보통 말로 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보게 된다. 서로가 대화로 정을 주고받는 ‘말체’로 옮겨진 이 번역은 우리말다운 점에 힘쓴 큰 열매라고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낮춤말로 한 점에 대하여, 필자는 잠잠히 넘어갈 수 없어 감히 공분을 터뜨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나 민중에게나 공손히 인격적으로 대하셨을 것이 분명한 일인데, 예수님을 어찌 대화법을 가르치는 분으로 만드는가? 상대방을 낮잡아 알보는 말투를 써야만 그분의 신격에 있어, 권위와 위엄이 드높여지고 경전으로서의 경건미가 발휘되는가?

1967년 「새번역 신약」에서 겪은 교계의 견제, 소아병적 단견의 세에 밀려 뒤집어 쓴 굴레를 이 번역에서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전통·권위를 고수하는 미명에 얽매어, 우리말 어법에 거스르는 처사는 결코 슬기로운 일이 아니다. 빛나간 충성심이 저지르는 폐단이 민족적 충력을 기울인 역자의 공력에 먹칠한 꼴이 되었으니 말이다.

2.2.1. 번역의 배경, 완료

먼저 그 ‘머리말’을 살펴본다.(1993년 1월 30일 초판)

“1983년 10월에 번역을 시작하여 1992년 성탄절 전야에 끝마무리를 하기까지 …(줄임)

현재 한국교회에서 쓰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은 출간된 후,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까닭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계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도들로부터, 앞으로 교회에서 「개역」 성경의 뒤를 이어 사용할 새번역 성경을 준비해 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어, 대한성서공회에서 「표준 새번역」 성경 번역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의 수정이나 교정이 아닌, 전적으로 새로운 번역을 하되, 「개역」 성경의 보수적인 정신과 한국교회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정하였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0대와 20대, 그리고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현대어로 번역한다. 이것은 「표준새번역」에 사용될 언어의 성격과 수준을 규정한 것이다. 「표준새번역」 성경을 보통말, 곧 현재 우리 사회 대다수의 언어인구가 널리 쓰고 있는 표준말로 번역한다는 것이다.

둘째, 언어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이것은 번역원칙을 요약한 것으로서, 번역 본문에서 번역어투를 없애고, 우리말 관용구를 활용하여 원문이 뜻하는 바를 우리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말을 쓰는 신도들이나 독자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다는 것이다. 원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와 번역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가 같도록 한다는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다.

셋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이 되도록 한다. 이것은 번역성경의 용도를 밝힌 것이다. 그래서 「개역」을 바탕으로 교회에서 이미 널리 쓰이는 용어들은 「표준새번역」에서 그대로 받

아들였다.(줄임) 또 성경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유행어나 저속한 표현은 쓰지 않았다.(줄임)

번역 대본으로는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에서 출판한 「그리스어 신약」(제3판-1983)을 사용하였다.(줄임)

2.2.2. 번역에 참여한 분들

번역위원

김창락 교수 (한신대)
박형용 교수 (합동신학원)
서중석 교수 (연세대)

문장위원

김연수 (여성시인)
김정은 (숙명여대, 박사과정)
나채운 (장신대 교수)
도한호 (침례교신대 교수)
박창해 (전 연세대 교수)
전무용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정길남 (서울교육대 교수)
전혜영 (이화여대 교수)

대한성서공회는 이 작업을 마치고, 교계에 완료 보고서를 성의와 친절을 다 하였다. 곧 소책자 「표준새번역 성경전서 이렇게 출간되었습니다」를 펴 내었다. 그 내용은 8개 항목을 들고 있다.

1. 성경을 왜 다시 번역하였는가?
2. 번역자는 어떻게 선정되었고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3. 번역의 원본은?
4. 번역의 지침은?
5. 편집의 특징은?
6. 「개역」 성경의 어려운 표현이 「표준새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7. 여호와를 '주'라고 하였는데 그 까닭은?
8. 감수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은?

감수위원

서병주 (전 대한감리회 감독)

오병세 (고신대학원장)

이상근 (예장통합 중경회장)

이성현 (대구 서문교회 목사)

정진경 (전 신촌성결교회 목사)

위의 명단들은 리진호 지음 「한국성서백년사」 35, 36 에서 옮김.

2.2.3. 교계의 시비

한국 개신교계 풍토를 생각할 때, 이 「표준새번역」은 논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내용의 여하를 살피기 전에 우선 거부하는 자세로 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말 번역이 새로 나올 때마다 거부하는 역사가 흘러 내려왔다. 1938년 「구역」에서 「개역」으로 새로워질 때, 「새번역」이 나왔을 때와 「공동번역」이 나왔을 때, 지도층에서 배격한 고정관념이 오늘날에도 그 흐름의 틀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표준새번역」에 대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장 통합, 감리교회, 기독교장로회, 예장 고신 등에서는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개체 교회의 지도층에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도들에게 권하여 깨쳐주기에 마음 쓰지 않았다.

「표준새번역」에 대한 평론을 살펴본다.

◎ 박창환 목사 - '표준새번역에 대한 마음가짐' (성서한국 1993. 6.)

◎ 이상훈 교수 - '표준새번역 성경을 읽고' (성서한국 1993. 6.)

◎ 이현주 목사 - '표준새번역에 대한 시비는 정당인가' (새누리신문 1993. 7.

3.)

◎ 나채운 교수 - '표준새번역에 대한 이해' (기독교사상 1993. 10.)

◎ 리진호 장로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출판을 환영하며' (주간 기독교 1993.

3. 7)

한편, 1993년 3월 16일 예장(합동) 총회 회의실에서 「표준새번역」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4월 22일에는 예장(합동) 노회장, 총회 임원, 중경 총회장, 학부원 연속회의에서 「표준새번역」 성경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정출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다. -리진호 지음 한국성서 백년사 I. 230쪽 이하-

이에 대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그 지적된 사항에 18항목으로 자세히 성실한 해명서를 공표하였다. (문제 제기한 쪽의 반응을 듣지 못하였다. 필자의 과문의 소치일까?)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 성서공회에서는 「표준새번역」의 개정을 공약하고,

1993년 11월 13일에 개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오로지 개신교 신학자·목회자·어학자의 협력으로 공동에 번역하고 다듬고, 교계 중진의 감수위원회를 거쳐 신중하게 역사적 금자탑으로 출간한지 9개월 만에, 그 번역의 참여자는 제외하고 새로 선출된 위원, 16개 교단에서 참여한 위원으로 되었다.

이제 다시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갈 양이면, 정말 우리말답게 예수님 대화에 ‘하오체’로 고쳐지기를 바라는 필자의 속생각을 외람되어 털어놓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조바심하는 바이다.

2.2.4. 의역의 틀을 잡았다.

성서 번역의 방법에는 형식 합치 곧 원문에 직결시키는 직역과, 내용 합치 곧 원문의 뜻 이해를 중요시하고 옮기는 의역이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직역은 우리말이 될 수 없다. 낱말의 개념이 꼭꼭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짜임새가 아주 다르니 어울릴 수 없고, 말에서 우리나라는 정서가 매끄러울 수 없는 일이요, 뜻이 순리롭게 통해질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의역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길이 막히면 결길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움 같이 원천어 개념에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뜻의 말을 찾아야 하고, 말의 흐름에 걸치적거리리는 경우에는 줄이기도 하고, 뜻을 전달하기에 트릿하게 아쉬움이 있으면 보태어 채워주는 조정이 적절해야 좋은 번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숙한 번역은 변경·감축·첨가의 조절을 요구하는 의역 방법이 필요한 것이니, 우리말 어법에 걸맞는 융화점을 찾아야 한다. 원전에서도 그리스말 대신에 히브리말을 채택한 것을 보면 좋겠다.

‘임마누엘, 메시아, 아멘, 할렐루야’ 따위가 히브리 말이다.

문장위원 전무용 님은 「기독교사상」(1993.3.)에 발표한 “「표준새번역」의 우리말을 다듬으면서” 글에서

“... 한국교회의 전통 때문에, 좀 어색하지만, 더이상 매끄럽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 (줄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내가 느끼는 ‘해라체’에 관한 것이 아닌지?

우리말의 존비범은 날카로운 어감을 자아낸다. ‘해라, 하계, 하시계, 하오, 하시오, 하십시오’ 들은 그 단계마다 제자리에 바로 들어서야 말이 부드럽게 흐르게 된다. 이에 덧붙여 바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삼인칭 대명사로 ‘그’라 하는 것보다 ‘그분’으로 씀이 좋겠다.

2.2.5. 번역 대본의 차이

대본이 달라서 결과에 엉뚱한 바가 있는 예 - 마태복음서 21:28 이하의 ‘두 아들 비유’를 본다. 「개역한글판」에서는 맏아들이 “가겠나이다” 하고서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소이다” 하였다가 뉘우치고…가 「200주년역」과 「표준새번역」에서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사본의 차이에서 달라짐)

또 「200주년역」에는 ‘주의 기도’(마태 6:9이하) 끝맺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아멘] 문구가 없다.

2.2.6. 좋은 점 몇 가지

(1) 풍부한 각주

「개역개정판」의 난외주보다 훨씬 풍부하게 붙여놓은 각주는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마가 16:9-20의 긴 끝.

(2) 적극성 의지를 복돋움

구하라 · 찾으라 · 두드리라 → 구하여라 · 찾아라 · 두드리라

(3) 부드러운 말을 씀

개역- 가난한 자 → 표준새번역- 가난한 사람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

※ 국어사전 풀이: 자(者) - 사람을 가리켜 앞잡아 이르는 말.

(4) 문장부호에 충실한 점.

3. 「개역개정판 신약전서」

우리말 세 번역 신약의 하나로 지목된 이 역본은 그 바탕이 글말로 쓰인 문어체로서, 새모습으로 개정하여 교계에 제공된 최신 간행이다.

「개역 한글판」을 개정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시작한 실무 작업 진행 소식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성서한국」에 공개된 바 있었다.

1997년 가을에 「성서한국」에 개역 개정 감수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박사(서울신학대 전 총장), 서기 도한호 박사(침례신학대 교수)의 ‘개역성경 개정작업 완료 보고 기사’가 있었고, 1998년 8월 31일자로 대한성서공회 김호용 총무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라는 글을 교계에 띄웠다. 곧

“1961년에 최종적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은 역사적으로 한국교회의 사랑을 받아온 자랑스러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그대로 계속해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과서와 국어사전에서 쓰는 한글맞춤법이 변하였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실 언어도 많이 변하였으며, 성서학 및 관련 학문들도 눈부시게 발전하여 번역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가능한 한 현재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는 원칙하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83년 9월부터 약 10년간의 작업 끝에 ‘개역한글판 개정원고’가 완성되었고, 1993년 8월 16일 각 교단에서 대표로 파송한 성서학자·신학자·목회자·국어학자 등으로 ‘개역한글판 개정감수위원회’가 조직되어 4년 동안 157회의 독회와 토론을 거쳐 개정원고를 감수하였으며, 1997년 11월에는 ‘감수용’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감수용 성경을 1,600여명 이상의 한국교회 각 교단의 목회자들과 학자들에게 보내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1998년 5월에는 개정위원들과 감수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로부터 들어온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수렴하여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더 좋은 번역을 만들려는 열성을 가지고 작업한 결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곳을 개정하게 되었지만, 시대와 언어의 변화를 감안하여 꼭 고쳐야 할 부분만을 개정함으로써 「개역한글판」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개역의 문체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줄임)

위의 글로써 「개역개정판」의 성격과 그 배경은 충분히 밝혀졌다. 우리말을 성경 언어로서 합당하게 다듬어 놓은 역사적으로 자랑스러운 번역임을 자임하였다.

3.1. 한자어 숭상의 번역

우리말은 겨레 고유의 순 우리말과 한자어가 아우러지는 바탕을 지니고 있다. 국어사전을 펼쳐 보면, 기본말 수의 70% 이상이 한자어임을 알 수 있다. 「개역」 성경 번역은 한자어를 숭상하는 풍토에서 이루어졌다. ‘아버지·어머니’보다는 ‘부친·모친’이 존대말이요, ‘아들’보다는 ‘자제’라 불리어야 흐뭇해하는 것들이다.

3.2. 언문일치의 번역

우리말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수정역」과 유성준의 「국한문신약」 말고는 일상 생활의 대화에서 쓰는 말과 글로 적은 말이 일치하게 하는 문어체로 번역되

었다. 뜻글자인 한자가 지닌 강력한 조어력에 눌려, 한자어가 성서언어의 주축을 이루게 된 것이 순리로운 추세로 우리말 구실을 함에 큰 몫을 하였다고 본다. 60년간 우리말 성경으로서 왕좌 자리를 차지하여 오늘에 이른 문체로, 이 시점에도 한국교계를 지탱하여 온 개역판이 이제 새롭게, 겨레의 지성인 신학자·목회자·어학자의 협력과 한껏 정성을 쏟아넣은 이 개정판은 새롭게 번역된 최신역의 출현에 못지않게 우리말 신약의 하나로 손꼽아야 한다.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문장 기호를 쓰지 않은 점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마 5:3-4)와 같이 몇 군데 구두점을 썼을 뿐이니, 현대 문장 표기에 어긋나게 고집부린 것도 좋은 보수성일까? 문맥의 단락마다 그 대목의 대지(작은제목)를 붙이는 친절을 베풀면서 이해에 도움되는 문장 기호를 쓰지 않은 것은 무슨 뜻에서일까? 매양 한 절씩 따로따로 새 줄을 잡은 것은 잘한 일이다.

4. 끝맺음 : 세 가지 신약의 번역 비교

마태복음 1:18-19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는데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몸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롭고 또한 마리아의 일을 폭로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몰래 그를 소박하기로 작정하였다.</p>	<p>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p>	<p>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꿋꿋하여</p>

마태 복음6:9-13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일용할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빛진 이들을 용서했듯이 우리의 빛을 용서 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에서 구 하소서.</p>	<p>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p>	<p>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p>

마태복음 16:21-22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이 때부터 예수께서 는 당신 제자들에게 (앞 일을) 밝히기 시작하셨 으니, 당신은 마땅히 예 루살렘으로 올라가 원 로들과 대제관들과 율 사들로부터 많은 고난</p>	<p>그 때부터 예수께서 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 살렘에 올라가고, 장로 들과 대제사장들과 율 법학자들에게 많은 고 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 고, 사흘째 되는 날에</p>	<p>이 때로부터 예수 그 리스도께서 자기가 예 루살렘에 올라가 장로 들과 대제사장들과 서 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p>

<p>을 겪고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만에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분을 붙들고 나무라기 시작하며 (하느님께서) 은혜로우시기를 빕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p>	<p>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p>	<p>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p>
--	--	---

누가복음 1:3-4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저 역시 모든 일을 그 시초에서부터 더듬어 면밀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존귀하신 데오필로님, 당신을 위해서 순서대로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읽어보시고) 당신이 이미 배우신 말씀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납득하시기 바랍니다.</p>	<p>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귀하께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귀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p>	<p>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p>

요한복음 1:1-5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느님과</p>	<p>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p>	<p>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p>

<p>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생겨난 것치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함께 계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p>	<p>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p>
---	---	--

요한복음 14:16-17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나는 아버지께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협조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p>	<p>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 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p>	<p>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p>

<p>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p>		
---	--	--

로마서 7:24-25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비참한 인간,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p>	<p>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p>	<p>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p>

고린도전서 2:1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나는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전하려고 가지는 않았습니니다.</p>	<p>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니다.</p>	<p>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p>

고린도 후서 4:16-17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외적 인간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사실 우리의 일시적인 가벼운 환난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비할 데 없이 넘치도록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p>	<p>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p>	<p>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p>

갈라디아서 6:9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에 싫증을 내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 맥을 놓지 말아야 제때에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p>	<p>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p>	<p>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p>

에베소 2:14-16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실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두 편을 하나로 만드려고 자신의 몸으로 장</p>	<p>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p>	<p>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p>

<p>백 곧 적개심을 없애셨으며, 조문들로 된 계명들의 율법을 철폐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평화를 이룩하여 자신 안에서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한 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두 편을 하느님과 화해시켜, 자신 안에서 적개심을 죽이셨습니다.</p>	<p>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p>	<p>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p>
--	---	--

빌립보서 2:5-7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야 할) 생각을 서로 품으시오. 그분은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노획물 인양 (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시어 여느 사람 모양으로 드러나</p>	<p>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p>	<p>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p>

셨도다.	나타나셔서	
------	-------	--

히브리서 9:24-26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성소)의 모조품에 불과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대제관이 다른 피를 가지고 매년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세상 시초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대의 종말인 지금 자신의 희생을 통해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한번 나타나셨습니다.</p>	<p>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고 하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러서,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의 종말에 오직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p>	<p>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p>

요한계시록 22:21

「200주년역」	「표준새번역」	「개역개정판」
<p>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곧 오겠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이와 함께!</p>	<p>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p>	<p>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p>